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05.(목) 11:00 (지면) 2026. 11. 06.(금) 조간 배포 2026. 11. 05.(목) 06:00

해수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관련 어업인 현장 목소리 듣는다

- 황종우 해수부 장관, 11월 6일부터 연말까지 품목별·업종별 어업인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6일(금)부터 연말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현장 의 애로사항 등 어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품목별·업종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6일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당시 수산업계에서는 CPTPP와 관련해 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와 수산보조금 유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선제적인 피해 보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품목과 업종을 세분화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품목·업종별 여건과 예상되는 영향,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첫 간담회는 11월 6일(금) 오송에서 새우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새우 양식 및 어선어업 관계자들을 만나 CPTPP와 관련한 새우업계의 현안과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어, 돔류, 가리비, 멍게 등의 양식업과 연근해·원양어업 등 품목·업종별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CPTPP가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업계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품목과 업종별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를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듣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어업인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1-773-5420)
	수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수 (051-773-5427)
	국제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성현 (051-773-5380)
	통상무역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조재범 (051-773-53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